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7호 [루계 제23384호] 주제100 (2011)년 3월 8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 8 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 조로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 8 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 너성일군들과 함께 3월 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해빛 따사로운 희망의 불계절에 대동강반의 화려한 극장에서 어버이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다.

김정일동지를 국장에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단장 겸 수석지휘자인 빠벨 오브싼니꼬브와 관현악단의 행정지배인 나탈리야 셰묘노바,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페리 쿠히너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관현악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조선녀성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너성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주시였으며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온 나라 전체 너성들의 다함없는 흡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3. 8 국제부녀절을 맞는 너성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일치며 조국청사에 빛날 자랑찬 위훈을 새겨 가고있는 우리의 전체 너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당파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정은동지, 최영림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양형섭동지, 김경희동지, 강석주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통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우동측동지, 김락희동지와 평양시에 있는 너성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회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녀성의 대표인 회장을 비롯한 너맹일군들,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의 너성로력혁신자들과 너

성작가, 기자, 방송원, 창작가, 예술인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부인, 대사관의 공식외교관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무대에는 혼성합창 《선군시대녀성찬가》, 너성 6중창과 합창 《녀성은 꽃이라네》, 남성독창 《나의

어머니》, 《사랑의 봄빛》, 음악 《돈돌라리》, 남성독창과 방창 《우리 집사람》, 너성독창과 방창 《영웅의 안해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합창 《찬란한 미래 향해 앞으로》, 이전 쏘련노래들인 혼성 2중창 《은방울꽃》, 혼성 8중창 《축배》, 이탈리아노래 혼성 4중창 《그대를 위해 내가 산다》, 메히꼬노래 너성독창 《밤불레오》, 격검 2인무 《나뿔리따란빨라무용곡》, 기교종목 《노래하는 큰 잔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관람자들은 희열과 랑만, 풍만한 정서가 넘쳐흐르는 공연을 보면서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자기의 명성과 존재 가치를 눈부시게 빛내여가는 조선녀성의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면서 부강조국을 건설하는 길에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믿음직하게 떠밀어나

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두 나라의 인민배우, 공훈배우들과 국제콩쿠르상자들을 비롯한 이름있는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들이 출연한 공연은 높은 예술적 기교와 훌륭한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로 쿠바 21세기관현악단의 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훌륭한 합동공연을 진행하여 3. 8 국제부녀절을 뜻깊게 맞는 우리 너성들에게 기쁨과 고무를 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크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알아сад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3월 8일혁명 4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아랍사회부흥당 그리고 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평안고원을 비롯한 강점된 아랍땅을 되찾고 중동문제를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리아인민의 투쟁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확고한 지지와 현대성을 재확인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아울러 나라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을 축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주제100(2011)년 3월 7일

사설

녀성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강성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서 우리는 3. 8 국제부녀절을 맞이한다.

3. 8 국제부녀절은 전세계 근로여성들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시위하는 전투적 명령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너성들은 자신들을 선군혁명의 징집으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너성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성해나갈 불리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혁량입니다.》

우리 나라 너성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가장 값높은 삶을 누리며 높은 앞길을 개척해온 부발은 너성들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너성운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해야비시고 너성문제해결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 너성들의 첫 혁명조직인 반일부녀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조선녀성운동의 빛나는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 불공정적 폭포에서 피눈물을 흘려온 우리 너성들에게 자주적 권리와 높은 삶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바치신 한평생의 헌신은 이루 다 해야될수 없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많이 하여온 혁천시 금산중학교 소년단지도원 김은옥은 온 가족의 지성이 어린 원호품들을 가지고 건설장을 찾아 군인들의 로력을 고무해주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로동자 최종일, 옥류판로동자들이 박향미, 키성애도 발전소건설을 돋는 일에 성의를 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온 혁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더 잘하였다.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삶을 빛내이려는

일념밑에 무역은행 부원 김은심은 혁명과 업수행에 투신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제육성 산하단위 부원 한미향, 보통강려판단리국로동자 심혜영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함께 일떠세우는 실정으로 혁천속도창조자들을 성의껏 원호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많이 하여온 혁천시 금산중학교 소년단지도원 김은옥은 온 가족의 지성이 어린 원호품들을 가지고 건설장을 찾아 군인들의 로력을 고무해주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로동자 최종일, 옥류판로동자들이 박향미, 키성애도 발전소건설을 돋는 일에 성의를 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온 혁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더 잘하였다.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삶을 빛내이려는

일념밑에 무역은행 부원 김은심은 혁명과 업수행에 투신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김은심은 우리 나라 너성들의 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오늘 우리의 전제 너성들은 앞에 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

성국건설대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고 혁명으로운 파업이 나서고 있다.

모든 너성들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국건설대전에서 조선녀성성군로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라고 오늘의 평공격전에 한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

김정숙, 전세계녀성들의 귀감

우리 여성들은 어느덧 101번째로 3. 8 국제부녀절을 맞게 된다. 3월 8일, 이틀되고 1·9·4·5년 1·2월에는 국제민주녀성평등이 자기의 탄생을 알리였다.

돌이켜보면 만체자주, 평화와 민주주의, 여성의 사회적권리를 위한 투쟁의 갈피갈피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제나름의 모습과 흔적을 새겨왔던가.

역사가 기록하고 시대가 자랑하며 국민이 추억하는 이들은 분명 우리 여성 세계의 공지가 아닐수 없다.

그 많은 여성들중에 나에게 눈부시게 안겨드는 모습이 있다.

3·2 살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고 그토록 아름답고 고귀하게 생을 빛내인 조선의 김정숙녀사!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김정숙녀사에게 배혹되었다.

여성이 여성에게 매혹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구나 그러하듯 세계적인 여성인들을 승배하며 나름대로 리상형을 모색하고 거기에 자신의 페일을 비쳐보던 나였다.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 드디어 나는 전세계녀성들에 따라배워야 할 위대한 귀감을 알게 되었다.

책갈피속에서도, 현실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위대한 여성은 알게 된 것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다.

3·8 절을 맞은 월들은 오늘 무더운 힘을 세워 김정숙녀사에 대한 매혹의 감정을 터친은 국제민주녀성평등 위원장의 무리행으로 되며 동시에 현세기의 귀감여성을 강당하는 전세계여성들을 위한 유익한 일로 될것이다.

1

대다수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김정숙녀사의 생전의 모습을 뵈온 적은 한번도 없다.

만나보지도 못하고 매혹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김정숙녀사의 생애는 너무나 전무후무한것이어서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듣는것이 낫다는 명구 마저 설득력을 상실하게 한다.

내가 김정숙녀사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것은 2002년 국제민주녀성평등 위원장직을 맡고 조선민주녀성동맹파의 사업에 투身心으로 헌신하였다.

사실 우리 깜빡스일자는 이미 전부터 조선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60년대에 《10월 8일 혁명 운동》이라는 조직을 냄고 사회주의를 지향한 오빠 끌라우디오 깜빡스는 1993년 4월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았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형제들을 모여놓고 흥분을 터놓았다.

…그 어떤 성인도 비길수 없는 자애와 풍만한 인정미, 무한히 소탈하고 겸허하신 풍모, 넓은 도량, 해박한 지식, 친근한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누구나 반하지 않을수 없고 따르지 않을수 없는 위인이다. …

경계에 넘친 오빠의 이야기에서 나는 주석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김정숙녀사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금할수 없었다.

위인의 결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김정숙녀사는 어떤분이길까.

다음해 4월에는 로씨니파형님이 주석을 만나뵙고 돌아왔다. 형님은 빨찌산군복차림의 김정숙녀사의 사진과 어려운 도서들을 보여주면서 너사에 대한 경모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터놓았다.

그 열렬한 경모심은 김정숙녀사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조선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께 경의를》이라는 시를 낳게 하였다.

동방조선에 찬란한 빛 뿐리는 빨찌산의 너장군

김일성주석의 가장 가까운 천우이신 민족의 영웅 김정숙녀사

…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리

용감한 항일의 너걸로

영원히 꺼칠줄 모르는 아름다운 꽃

으로

…

2005년 여름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국제민주녀성평등 대표단의 평양방문은 김정숙녀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준 더없이 좋은 경이였다.

10대의 소녀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서서 1·8살에는 총을 잡고 10년 세월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신 김정숙녀사, 너사의 일생은 총과 함께 시작되고 총과 함께 훌려왔다고 볼수 있다.

생각해보면 총과 너성은 거리가 멀다. 예로부터 《전쟁은 너성을 배제하였다.》는 말과 함께 총은 너성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너성들이 두려워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다.

더우기 당시는 조선녀성들이 망국과 봉건의 사슬로 하여 2중 3중의 억압을 받으며 바깥출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그런 시대에 단연 총을 잡고 나라찾는 정업에 한몸바칠

용단을 내린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 이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15년간에 걸친 조선의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외부의 도움도 없이 유격전으로 진행되었다. 상대는 아시아의 《맹주》로 등장하여 동방천지를 종횡무진하던 신홍군사강국이었다.

일본당사자들까지도 조선의 빨찌산을 두고 《창해일속》 즉 바다속의 황금을 만한 존재라고 비유했다니 빨찌산 시절의 간고함은 견설명이 필요없을것이다.

너사의 빨찌산생활은 많은 일화들을 남겼다.

총알에 눈이 달렸다고 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사격술이며 수많은 적들을 단신으로 유인하여 부대의 안전을 지켜낸 이야기, 적의 대부대와의 접전에서 힘찬 노래선창으로 적들을 전몰케 한 이야기…

또 국제협동군시절에는 전술훈련, 항공폭전훈련, 도하훈련, 스키훈련, 무선통신훈련을 비롯하여 현대전에 대비한 각종 훈련에서 막힘이 없이 중국파 이전 쏘련의 한하다는 군사가들을 놀라웠다고 한다.

이 8개의 영웅메달을 다 합쳤다 해도 너사의 업적을 대신 할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된다.

너사의 유해가 안치된 평양의 대성산 혁명렬사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메달이 빛을 뿐이고 있다.

녀사의 생존시에 역사를 드리고 조국이 드리고 인민이 드리고 싶었던 영웅메달이다.

마르씨아 데 깜뽀스 빼레이라

김정숙녀사에 의해 창조된것이었다.

참으로 조선의 문학예술가 수십수백 편의 시와 소설, 영화와 미술작품에 담아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너사의 업적 중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김일성주석의 신변을 한목숨 내대고 보위한 그것이었다.

너사가 아니었다면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의 어제와 오늘, 폐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또한 진보적인류는 20세기 자주시대의 위대한 거성의 출현을 보지 못했을것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이 발행하는 잡지 《조선녀성》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너사께서는 해방후 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수백개 단위로 7000여 차나 찾으며 주석의 사업을 보좌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조선방문시 들려보았던 공장과 농촌마을, 학교와 병원, 타카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광지들을 너사의 혼신의 자목이 새겨져있었다. 그 업적을 곁이 절하고자 조선민족은 어려운 곳에 혼자 존함을 꼽고자 했다.

김정숙군, 김정숙 해군 대학, 김정숙사범대학,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김정숙료양소, 김정숙탁탁아…

가정임은 너사의 본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녀인들에게 한한것이다. 우리 브라질만 놓고보아도 약간한 권력이나 재부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데려다 짐안일을 시키는것이 상례이다. 하물며 한나라 수상의 부인이 혼화로운 저택에서 온갖 시중을 다 받으며 호의호식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너사는 주석의 부인이시기 전에 정성이 지극한 주부이시였다. 주석의 식사대접은 말할것도 없고 양말이나 장갑도 자신께서 떠드리시였다 한다.

주석을 위한 일은 비록 자그마한것일지라도 제순으로 jusqu'au cœur에 깔끔은 짐을 위한 일은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저어 생명까지도 바치시려는 너사의 혼신이 이런 일화도 남겼을 것이다.

녀사에는 로동계급의 수령들과 일생을 함께 한 훌륭한 여성들에 대한 감동깊은 일화들이 적지 않다.

맑스의 부인도, 베닌의 부인도, 손문의 부인도 혁명에 바친 생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후세에 그 미거가 전해지고있다. 그들은 부인이기 전에 결혼한 혁명가였고 사상적동지였다.

그러나 역사는 김정숙녀사와 같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뿐아니라 수령의 인생, 건강을 위해 자기를 꽂그리 불태운 너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8권을 다시금 펼쳐보며 이 글을 쓴다.

2007년 4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국제민주녀성평등 제14차대회에서 조선민족당들을 통해 얻은 에스빠나어 문판이다. 까라카스의 짧은 밤마다 잠들 수 없게 했던 회고록에는 너사께서 수십년세월이 흘렀어도 정녕 잊지 못해하신 너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숙녀사는 10여년세월을 잡고 전장을 누비며 대적파 맞서 싸우신 너장군이시였다.

나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투사라고 자부하는터이지만 머리가 숙여진다.

예로부터 장군이라는 말은 남성파 통했다.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성시의 수호신》, 《불의 너전자》와 같은 그리스신화속의 장수는 있어도 력사속에 실제한 너장군은 없었다.

녀성들은 우체적하게 하여 군사분야에서는 남자들을 초월하기 어려운것이다. 그래서 뛰어난 너성은 많아도 장군으로 이를 냄긴 너성은 없는것이다.

현대 조선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조선 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나는 한상의 그림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빼지 못했다. 항일의 나날 대사하치기라는 곳에서 있은 실제한 사실을 형상한것이라고 하였다.

바위 위에 높이 올라 전투를 지휘하시는 조선빨찌산대장 김일성주석, 그의 가까이로 총을 겨냥하고 온밀히 기여드는 대여섯놈의 적병들, 위기일발의 순간에 몸을 날려 방패처럼 주석을 막아나서며 으스러지게 틀어잡은 싸창으로 적들을 쇄늘히는 김정숙녀사…

그 순간은 오늘 우리 브라질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짧은 초밥에 안될것이다. 그러나 그 한초한초는 조선혁명의 승리와 민족의 운명이 지켜진 순간이다.

그리고 너는 빨찌산에 대여섯 세월을 헌신했던 것이다. 그정도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속에서 젖은 옷을 몸에 품어 말리려는 너는 너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가정의 이론을 끌어들여 헌신하는 너는 너자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너는 빨찌산에 대여섯 세월을 헌신했던 것이다. 그정도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자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정도는 아름다운 것이다.

당의 품속에서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 자랑떨치는녀성들

또다시 3.

8월이 왔다.

우리녀성들은

전군조선녀성의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전세계 근로녀성들의 국제적명절을 맞이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돌이켜보면 세계 진보적녀성들이 3월 8일을 국제적명절로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훑혔다.

100번째년률을 새기며 찾았던 3. 8월은 조국과 인민의 축복속에 맞으며 우리녀성들이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 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수령, 우리당, 우리조국, 우리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며 그 품을 떠나 이 땅의녀성들의 보람찬 어제와 오늘, 희망찬 새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 진리이다.

오늘 우리의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력량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값높은 삶을 꽂고 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이 땅의 공장, 기업소들에 가보아도, 들리는 건설조직의 힘정이 서늘한 풍랑에서 걸을수 있다. 그들이 힘들어하면서도 찾는 우리녀성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너성으로서의 값높은 존엄과 삶의 행복을 누리며 부강조국건설에 헌

조선녀성들을 부러워하라

우리장군님의
그다심한아버지
사랑이 있어 이

땅에녀성들의 행복의 노래, 탐

만의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조선녀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녀성들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태양의 따스로운 빛발이 없

이 아름다운꽃이 피여날수 없

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

로운 사랑과 은정을 떠나 어찌

조선녀성의 궁지로운 삶과 행

복을 생각할 수 있으랴.

어제는 『봉황기』회장풀파

『코스모스』머리빈침을 안겨

세상이여, 부려워하라. 조

선녀성들을!

우리녀성들은 자기들에게

침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장군님에 대한 다함께

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

으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갈 각오에

넘쳐있다.

본사기자장은영

길에 없는 궁지와 자부심에 넘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가하면 조국방선초소들은 남편들과 함께 종대로 혁명의 수녀부를 결사옹위하고 우리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군인가족들의 커다란 영예와 남다른 행복이 차넘치고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나가신 평양화초

연구소를 찾았던 우리는 이곳

에서 일하는녀성들로부터 차

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향기를 풍기며 온실마다 활짝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이곳 종원들의 수고를 치하해주신

경애하는장군님께서 자기들을

물가까이 세우고 사령의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연구소의녀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머금었다.

어찌 이들만이랴. 수도의

한 학연구기지에 가보아도

경애하는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고향탐구의 길에

비친 한녀성과학자의 수고를

물가까이 세우고 사령의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연구소의녀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머금었다.

한국여성과학기술협회에서

제1회여성과학기술상을

수상한 김진명여성과학기술

기술상을 수상한 김진명여성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김

